“서로 손 잡고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제42회 아름다운 동행 행복결혼식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協 주최
6쌍 부부 추억 선사…가전·생필품도
김종우 광주지검장 “축복 가득” 덕담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가 주관한 ‘제42회 아름다운 동행 행복결혼식’이 지난 11일 오후 3시 광주 서구 치평동 JS웨딩컨벤션 3층 그레이스홀에서 열려 6쌍의 부부가 혼인 서약 등을 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안재영 기자

“당신은 나에게 있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젠 내가 당신의 가장 큰 선물이 돼줄게요.”

지난 11일 오후 3시 광주 서구 치평동 JS웨딩컨벤션 3층 그레이스홀에선 ‘제42회 아름다운 동행 행복결혼식’이 열렸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가 주관한 이날 결혼식은 광주지방검찰청과 광주시, JS웨딩컨벤션 등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안병열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장과 황경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장, 김종우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하객 130여명이 참석했다.

법무보호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워 식을 올리지 못했던 동거부부나 미혼자들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도록 돕기 위한 행복결혼식은 1985년부터 매년 전개됐다.

이날 식을 올린 6쌍을 포함하면 42년간 327쌍의 부부가 추억을 선물받았다. 결혼식에 드는 비용 외에도 TV, 선풍기, 전자레인지 등의 가전과 다양한 생필품이 지원됐다.

서화진 사회자의 개식 선언으로 시작된 결혼식은 ▲내빈 소개 ▲주례 등단 ▲화촉 점화 ▲신랑·신부 입장·맞절 ▲혼인 서약 ▲성혼선언문 낭독 ▲예물 교환 ▲주례사 ▲축하 덕담·공연 ▲신랑·신부 행진 순으로 진행됐다.

주례를 맡은 안병열 협의회장이 단상에 올라가자 식장의 조명은 어두워졌고, 이날의 주인공인 6쌍의 부부가 하객들의 축하 속에 차례로 입장했다.

무대까지 가는 동안 6쌍의 부부들은 서로의 손을 꽉 잡은 채 발맞춰 걸으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들이 단상 위에 나란히 서자 하객들은 박수로 다시 한 번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안 협의회장은 주례사를 통해 “눈부신 웨딩드레스와 멋진 턱시도보다 아름다운 것은 ‘오늘’이라는 결실을 위해 함께 흘린 땀방울과 노력”이라며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을 맞이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서로의 손을 꼭 쥐고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우 광주지검장은 “기쁜 날, 행복한 날, 슬픈 날, 어려운 날이 있겠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함께 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앞날에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란다”고 축하 덕담을 전했다.

한 신부는 신랑에게 “세상이 차갑게 바라볼 때 내 편이 돼주고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며 “나의 가장 큰 선물인 당신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겠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광주여대 장지안, 미스코리아 전라·광주·제주 ‘선’ 당선

광주여자대학교는 14일 “항공서비스학과 장지안(사진 왼쪽서 네 번째) 학생이 지난 10일 해남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26 미스코리아 전라·광주·제주 선발대회’에서 선(善)에 선발됐다”고 밝혔다.

2학년에 재학 중인 장지안 학생은 현재 양궁 선수로 활동하며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수상으로 장지안 학생은 향후 1년간 해남군 관광 홍보사절로 활동하게 되며, 오는 8월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는 2026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전라·광주·제주 대표로 출전할 자격을 획득했다.

장지안 학생은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격려와 지도를 보내준 학과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도전정신을 더욱 키울 수 있었다. 본선 무대에서도 최선을 다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선옥 기자

전남자치경찰위, 나주서 찾아가는 현장 교육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2일 나주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경찰공무원과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찾아가는 자치경찰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안전 등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현장 공무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한 달간 22개 시·군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7개 권역을 순회하며 추진 중이다.

이날 정경채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이 자치경찰제 제도와 운영현황, 위원회 주요정책, 예산편성과 집행절차, 현장 치안정책 발굴 방안 등을 교육했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과 시·군 공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자치경찰사무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명에 대한 표창도 수여됐다.

정경채 사무국장은 “교육을 통해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의 역량을 높이고 현장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광주-대구 의용소방대, 11년째 달빛동맹 교류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1-12일 이틀간 광주 일원에서 광주의용소방대연합회와 대구의용소방대연합회가 함께하는 ‘제11회 달빛동맹 교류행사’를 가졌다.

양 단체는 매년 광주와 대구를 번갈아 오가며 재난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들의 인연은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홍보·관람을 계기로 시작돼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광주의용소방대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광주와 대구 의용소방대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첫날인 11일 광주소방학교에서 환영식을 시작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옛 전남도청을 방문해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했다.

이어 의용소방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 협력체계 확립을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12일에는 광주호 호수생태원을 찾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보냈다. /변은진 기자

민주평통구례協 ‘평화통일 시민교실’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례군협의회는 “최근 구례북초등학교 강당에서 학생과 교사 등 59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통일 시민교실’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통일 인식 형성과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우리가 만드는 평화통일’을 주제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맹지희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팀장의 통일 강연과 ‘남북철도 이름 짓기’ 등 단계별 미션 활동에 참여했다.

남북철도 이름 짓기에서는 ‘언제나 열차’와 ‘이음 철도’, ‘평화열차’ 등 모둠별 토의·발표를 통한 학생들의 직접 참여와 소통으로 다양한 통일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 /구례=김세중 기자

장흥 관산파출소·여성방범대, 안심 귀갓길 캠페인

장흥경찰서는 “최근 관산파출소와 여성자율방범대원들이 관산초등학교 주변에서 강력범죄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과 학부모·주민 불안을 줄이기 위해 ‘우리 아이들 안심 귀갓길 예방 순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등은 학교 주변, 통학로, 학원가 등 학생 생활권역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귀가할 수 있는 학생 치안 맞춤형 활동을 전개했다.

관산파출소 관계자는 “민간의 지역사회 순찰 참여·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범죄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며 “앞으로 학교는 물론이고 협력단체와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예방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광주 남부소방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최우수상

광주 남부소방서는 “최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제27회 광주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과 금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유치부와 초등부 각 11개팀이 참가해 안전의 중요성을 노래로 표현하며 열띤 경연을 펼친 가운데, 남부소방서를 대표해 출전한 삼육초등학교가 최우수상을, 지예유치원이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

송성훈 남부소방서장은 “최우수상과 금상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기까지 열심히 연습하고 지도해준 선생님과 어린이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배우고 자신감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형우 기자

목포보호관찰소, 판사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는 “최근 청사 2층 회의실에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장과 형사재판 담당 판사들을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판결 이후 집행 현장을 살펴보며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원과 보호관찰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최신 보호관찰 동향과 주요 업무 현황 공유와 함께 전자감독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시스템의 원격 감독 시연이 진행됐다.

참석한 판사들은 정부 국정과제인 ‘소년사법 통합기관’ 추진과 관련해 운영 중인 ‘비행청소년 처우전담기관’ 시범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해당 사업은 올해 3-12월 서울·광주·안산보호관찰소 등 3개 기관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비행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처우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길수 목포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법원과의 긴밀한 소통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과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담양농협,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교육

담양농협은 “최근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여성조직 회원 120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AI 기술을 악용한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과 실제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처 요령을 안내했다.

또한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 수신 시 확인 방법, 금융정보 보호 수칙 등도 함께 설명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범진 조합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조합원과 지역민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 보훈가족 위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4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영산강청은 최근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세대를 방문해 쌀, 여름이불,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로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김영민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역사회와 함께 보훈문화 확산과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활동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형우 기자